

PEOPLE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장세일 영광군수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장세일 영광군수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중심으로 릴레이 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조상래 곡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



광양농협, 산채·초피농가 워크숍

광양농협은 최근 산채 및 초피 재배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산물 전문 컨설팅 전문업체인 유한시아그리코 호남지사의 박해근 지사장이 나와 두릅 재배 기술부터 수확, 출하까지 실용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또 수도권 도매시장 유통전문가를 초청해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포장방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 및 맞춤형 판매전략 등도 교육했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은 "산채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재배 환경 조성과 병해충 예방이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고품질 작물 생산의 핵심"이라며 "농협을 통한 농산물 출하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



전력거래소 '청렴 읍부즈만' 운영협의회

전력거래소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외부 청렴 전문가인 청렴 읍부즈만과 내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1분기 청렴 읍부즈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력거래소의 청렴 읍부즈만은 주요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권고, 청렴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청렴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청렴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청렴 읍부즈만은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전력거래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구현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을 '2025 청렴도 향상 추진 방안' 시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와 함께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서 청렴 읍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광주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정화활동...“보전 앞장”

영산강환경청·공사공단·기업·대학교 등 참가 100여명 황룡강변 쓰레기 수거...3년째 실천

광주시는 대한민국 제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록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난 28일 광산구 장록습지에서 '민관 합동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를 비롯해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호남대학교 등에서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황룡강을 따라가며 강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광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광산구는 앞서 지난 2021년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 습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장록습지 정화활동에 1384명이 참가해 21t을, 2024년에는 840명 7.6t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민관



광주시는 대한민국 제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록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난 28일 광산구 장록습지에서 '민관 합동 정화활동'을 벌였다.

합동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류부 광산구 장록동, 서봉동, 선암동 일원에 위치한 도심 내 하천습지(2.7km)로 2020년 12월 8일 국가습

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새호리기, 흰목물떼새를 포함 829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모색

농협 등 유통업계 간담회...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

전남도는 시군,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남도장터, 유통업계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를 지난 27일 도립도서관에서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9개 유통업체별로 온라인 판매 운영 실적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 2025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해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도는 지난해 550억 원이었던 거래실적을 올해는 1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출하조직을 대상으로 판매

자 가입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 거래 목표액 6천억 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최정호 참총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면 유통비용도 절감되지만, 위탁수수료가 최대 5%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수수료보다 2~3% 낮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산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공간 제약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단위 도매 플랫폼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거래가 이뤄지면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므로 기존 오프라인 거래 시 발생하는 3~4단계의 유통체계가 1~2단계로 단축돼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에서 ESG경영의 일환으로 시설 개선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광주도시공사,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봉사활동

목조 데크 등 교체...안전사고 위험 최소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8일 남구 송하동 소재 아동 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에서 ESG경영의 일환으로 시설 개선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신애원은 1985년 10월 남구 송하동으로 이전한 이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건물 외부와 내부 전반에 걸쳐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야외 목조 데크의 경우 부식과 균열이 심각해 이용 아동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도시공사 직원이 주축이 돼 노후화된 목조 데크의 교체작업을 수행했다.

또 건물 내부 소규모 보수도 함께 진행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보다 나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애원 환경을 개선했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남구, 제8기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난 28일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남구



전남도는 시군,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남도장터, 유통업계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를 지난 27일 도립도서관에서 열었다.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50만 원 한도로 직배송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참여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서 홍보

축제 기간 전시관과 작품 안내·유튜브 구독 이벤트 참여 유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관과 주요 작품을 안내하며, 방문객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유튜브 구독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진도가 전통적 수목의 뿌리와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며, 현대적 수목의 변화를 확장하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병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진도는 수목의 전통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예술과 문화가 바다 너머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향해 나아가는 열매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단순히 예술 전시를 넘어 수목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장이다. 수목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올해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해남을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28일 서구 월광교회 선교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서구는 이날 구강·정신·안과·한방 등 다양한 기초 건강 건강검진 및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